

홍건희, KIA 5선발 퍼즐 완성하라

이적 고효준 NC전 호투 등 18.1이닝 평균자책점 1.96 활약

4선발 해결 KIA...홍건희 안정감 찾으면 5강 이상도 가능

KIA 선발진 완성을 위해 고효준에 이어 홍건희가 응모한다.

시즌 내내 선발 고민에 빠져있던 KIA 마운드에 고효준이 단비가 되고 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7월31일 고효준은 임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SK에서 KIA로 등지를 옮겼다.

간절함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고효준은 "완벽하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KIA 선수로 치른 9경기에서 18.1이닝을 11피안타(1피홈런) 5실점(4자책)으로 막으면서 1.9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불펜에서 위밍업을 시작한 그는 지난 18일 롯데전을 통해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고효준은 적지에서 5이닝 2피안타 3볼넷 7탈삼진 1실점의 깔끔한 피칭을 했지만 팀이 3-4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불펜 위기 상황에서 지난 21일 LG전에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그는 24일 NC 원정에서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서 5.1이닝 4피안타(1피홈런) 3볼넷 3

탈삼진 3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1-3으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이번에도 승리는 신고하지 못했지만 팀은 고효준의 호투를 발판 삼아 6-3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귀한 1승을 더했다.

민음과 기회 속에서 고효준이 노련한 면모를 보이면서 선발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김기태 감독은 25일 "투구수도 좋아지고, 어제 경기에서 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그것을 빼고는 좋은 피칭을 했다. 좋아지고 있고 기대가 된다"며 "선수 말년에 같이 운동을 생활을 해봐서 잘 알고 있다.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은 선수다. 팀에 좌완이 필요해서 데려왔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훈련도 성실하게 하는 친구다"고 고효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고효준으로 비어있던 선발 한 축을 세운 김 감독의 눈은 이제 홍건희에게로 쏠린다. 지난 7월10일 두산전을 시작으로 NC,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3승을 수확했던 홍건희는 최근 두 경기

에서 난타를 당했다. 16일 kt와의 경기에서는 2.1이닝 9피안타 3볼넷 2탈삼진 7실점(5자책)으로 부진했고, 21일 LG전에서는 3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른쪽 가슴 근육통 부상 전까지 선발진에서 안정되고 목직한 피칭을 해줬던 만큼 아쉬웠던 부진. 홍건희까지 안정감을 찾는다면 KIA는 완성된 5선발로 남은 시즌에서 5강을 넘어 4강 싸움까지 할 수 있다.

'밸런스'에서 부진의 원인을 찾는 홍건희는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홍건희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슴 부상 이후 몸쓰는 게 조금 변한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한 것 같다. 밸런스가 좋지 못한 게 부진의 이유다. 좋았던 때 영상과 비교해 보면서 밸런스를 찾으려 하고 있다"며 "내공을 던져야 후회가 없을 것인데 구위가 좋지 못해서 그렇지 못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 없이 내 공을 던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양현종, 헥터, 지크, 고효준, 홍건희 선수.

“타자 입장선 껌씹는 고효준 싫어해...그래서 데려왔지”

덕아웃 T 특특

▲들어갈 들어가

체력도 전력이이다. 한참 더위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25일 KIA는 삼성과 홈경기를 치렀다. 훈련 시간에 부지런히 공을 치고 있던 선수들. 그 사이로 외국인 선수 필도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로 향했다.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선수들의 훈련 열기였지만 이를 막아선 이가 있었다. 훈련을 하겠다는 선수들에게 그만하고 들어가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던 홍세완 타격 코치. 기술만큼이나 여름 시즌에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게 KIA 코칭스태프의 생각이다. 베테랑들은 실내 훈련과 휴식으로 이날 경

기에 대비했다.

▲이상한 기운이 있나 봐요

25일 경기 전 김호영이 타순 고민에 빠졌다. 이날 KIA는 김호영을 투타자로 해 서동욱으로 테이볼 세터를 구성했다. 서동욱이 우익수 자리로 들어가면서 김주형이 2루를 맡았다. 가장 먼저 타석에 서게 된 김호영은 "1번으로 들어가면 긴장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잘 안되더라"며 웃었다. 김호영은 또 "남은 시즌 최 대한 안타를 많이 치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니까 데려왔지

타자들이 보는 고효준은 어떨까? 고효준은 마운드에서와 일드한 선수 중 하나로 꼽힌다. 고효준은 눈에 띄게 껌을

씹으면서 특유의 품으로 공을 던지는 선수다. "타자 입장에서 고효준 같은 투수를 상대하면 어떤 기분이냐?"라는 질문에 김기태 감독은 "별로 안 좋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감독은 "이해전이 라든가 타자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투수들이 있다. 그래서 (고효준을) 데려왔지"면서 크게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30일 올림픽 양궁 금 기보배·최미선 시구·시타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광주광역시청·오른쪽)와 최미선(광주여대)이 KIA의 승리를 기원하며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기보배와 최미선을 초청해 승리 기원 시구·시타 이벤트를 개최한다.

2012 런던올림픽 2관왕(개인·단체전)인 기보배는 지난 22일 막을 내린 리우 올림픽에서도 최미선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8연패의 신화를 썼다. 기보배는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KIA는 이들을 지도한 박채순 광주시청 양궁팀 감독과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도 함께 초청한다. 박채순 감독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사상 첫 개인·단체전 동시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성은 감독 역시 기보배와 최미선을 발굴해 한국 최고의 궁사로 키워낸 지도자다.

KIA는 "기보배와 최미선 선수는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겼다"며 "이들의 활약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시구·시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배는 광주여대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KIA경기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다.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여대에 재학 중인 최미선은 여자 양궁 세계랭킹 1위의 '신궁(神弓)'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든든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리거 '새옹지마'

김현수, 2안타·수비 활약...볼티모어 3연승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지키고 있는 한국인 선수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시즌 19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활약을 펼쳤다.

김현수는 이날 미국 프로야구(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6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4경기 만의 멀티히트 타율을 0.318(233타수 74안타)로 조금 올렸다.

안타 2개 모두 팀의 백이닝을 이끈 시발점이었다. 김현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테너 로크의 6구를 밀어쳐 좌익수 앞 안타를 만들었다. 곧바로 3번 타자 매니 마차도의 2점 홈런이 터졌고, 김현수는 득점을 올렸다. 볼티모어는 1사 만루로 이어진 기회에서 맷 위터스의 밀어내기 볼넷과 J.J. 하디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보태 1회초에만 4점을 냈다.

김현수는 5-3으로 앞선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중간 2루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번에도 마차도가 우중간 안타로 김현수를 홈에 불러들였고, 볼티모어는 요나탄 스코프의 1타점 적시타와 위터스의 3점 홈런으로 10-3까지 달아났다. 수비에서는 이번 시즌 2번째 외야 보살을 기록했다. 볼티모어가 4-0으로 앞선 1회말 2사 1·3루에서 앤서니 렌던이 좌익수 김현수 쪽으로 2루타를 쳤다. 김현수는 짐작하게 유격수 J.J. 하디에게 송구했고, 하디는 다시 홈에 정확하게 던져 1루 주자 대니얼 머피를 잡았다. 볼티모어는 10-8로 3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70승(56패) 고지를 밟았다. /연합뉴스

박병호, 손목 수술 시즌 아웃...“내년 ML 다시 도전”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수술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를 어렵게 마무리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신문 '파이니어 프레스'에서 미네소타 구단을 담당하는 마이크 바라디노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병호가 26일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다. 폴 볼러티 감독은 박병호가 손목 힘줄을 바로잡는 수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6월부터) 좋지 않았던 손목과는 다른 부위"라고 공개했다.

메이저리그 첫 해 박병호는 엄청난 비거리의 홈런을 때려내며 순조롭게 적응하는 듯했지만, 빠른 공에 약점을 노출해 5월 중순부터 부진하기 시작했다. 6월부터는 오른쪽 손목 통증까지 겹쳤고, 결국 지난달 2일 마이네리그 트리플A로 강등됐다.

박병호가 올해 메이저리그 성적은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84다. 박병호는 트리플A에서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등 장타력을 뽐냈지만, 이번에는 손에 문제가 생기면서 31경기 타율 0.224(116타수 26안타), 10홈런, 19타점, OPS 0.823으로 마감했다. 박병호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처음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다. 홈런도 나왔지만, 부족한 걸 느꼈다. 마이너(리그)에도 열심히 하려 했다"고 올해를 돌아봤다. 이어 박병호는 "분명히 올해 좋은 성적이 아니었다. 이거(고전했던 경험)를 무시하지 않고 경험으로 생각해 내년에도 다시(메이저리그)에 도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